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
 하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독자

본보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전리안: AEUM 하이텔: 34713

불교청소년의 해 맞아 '새싹불자 키우기' 서원

청소년 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포교의
 방법이나 내용, 활동이 매우 미약한 상
 태이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단체가운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곳은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소년 포교
 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부터 청소년 포교가 달라져야 한
 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31교육개혁
 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포교는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전도선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전도
 의 길을 가라고 했다. 조계종이 정한 불
 교청소년의 해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원성취 불공 유혹 '직업 보살' 척결 해야

오즘 부산에서는 절에 불공·방생을
 위해 하루에도 대형버스가 어림잡아 1
 백여대가 출발한다. 특히 명절, 설, 보
 름이나 길일 일때는 시내 관광고속버스
 수백대가 동원해도 부족할 정도다. 이

들 신자들 대부분이 불공만 하면 소원
 성취 된다고 직업적으로 안내하는 자칭
 '보살'들이다.

며칠전에 필자도 이 모임에 함께 동
 승하여 절에 다녀온 일이 있다. 문제는
 주최하는 안내 '보살'의 경비정수방법.
 1인당 교통비 2만원에다 회원자신과 그
 외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기도비
 가 2만~5만원이다. 또 차내에서 마이
 크로 열불해주는 '보살'에게 축의금으
 로 2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비를 제외
 한 나머지 기도비와 축의금은 강제징수
 는 아니지만 체면 유지에 그냥 버틸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1인당 적게는 6만원 많게는 10여
 만원을 투자해야 불공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부분이 서슴지 않고 가족명단과 함
 계 금전 공약을 하는 것이다. 10만원이
 라면 일당 2만원 여성근로자의 5일분의
 노임에 해당된다.
 거슬러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
 부는 제쳐두고라도 갈때는 체면상 열불
 을 의욕이 넘치는 유행가 장단에 마
 치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한다면, 그
 차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한다면, 그
 차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한다면, 그
 차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한다면, 그
 차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한다면, 그

김창덕(부산시 동구 수정동)

민족비하 용어 '이조'를 '조선'으로 써야

귀사의 지난해 12월 20일자 3면
 '쌍봉사 대웅전'에 대한 기사를 보
 니 '이조 중기'라는 어구가 있더군요.
 이것을 보고 몹시 기분이 안 좋
 았습니다. 도대체 '이조'가 뭘
 까? 이조란 왜놈들이 조선을 그들의
 일개 지방호족으로 격하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로 우리가 절대
 로 써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그런

데 단연히 폐어가 되어 마땅한 이
 단어가 불교계 정상의 신문인 귀사
 에서조차 이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으니 매우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 낱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
 국어와 우리의 정신을 망친다는 사
 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승의(국립보건원 제품과)

군법당 어려움 소개 후원자 관심늘어

저는 경기도 연천군 군법당 원림
 리에 있는 정립사 군중병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자에 저의 병당의
 어려운 점을 소개해 주셔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현대불교'를 구독하
 고 있었지만 저의 소식을 직접 신
 문에 실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며칠도 지
 나지 않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
 고 보니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한마음
 요전>까지 받고 보니 더욱 감사드
 리며 저의 군중병들이 부처님의 가
 르침을 배워 깨달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가득 오름을 느끼고 있
 습니다. 또한 신문기사를 보신 불자
 들이 전보나 전화로 통해 도움을 주
 시겠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군포교를 위해 더욱 열
 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박경재(군중병)

요구합니다

천진암 홍보자료 스님 비칭표현 시정을

변기영 신부님께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천주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
 착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천진암에 대한 신부님의 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동안 천진암을 성역화하
 시는 모습에 이교도로서의 시샘보다는
 꾸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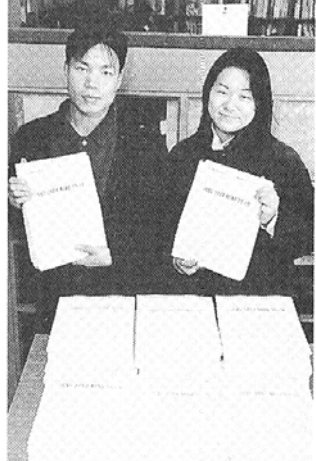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신부님께서 발행
 하신 <한국 천주교회발상지 천진암성지>
 라는 안내지도 및 설명서에 실린 '천진
 암 성지와 한국 천주교회 창립사 개요'
 라는 글을 보고 저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벽성조계서 ... 서둘
 러 종들을 깨워 천진암에 도착하여 그
 들과 함께 10여일간 강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써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부를 때 경청을 쓰지 않으려면 보통으
 로라도 불러야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이벽선생은 '성조계서'라는 표현
 을 써놓고도 스님들은 '종'이라고 표
 현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진암은 절이었
 고 스님들의 도움으로 불을 숭갈수 있
 었던 절과 '천진암성지화'가 민족의 자
 람이요 '공지'라고 하신 신부님의 말씀
 에 비춰 보았을때 차라리 서글픈 마음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승려의 한사람으로서 다
 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발행
 한 '한국 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
 지' 내용중 해당부분 시정과 그동안 배
 포된 안내지도 및 설명서를 전량회수,
 폐기처분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법현(서울시 강신동 원각사)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가 펼쳐온 서명운동에 20만명을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 11일 청와대·국회·문체부·건교부 청원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서명부를 정리하고 있다. 경주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관계자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유경미(서울 흑석3동)

보그만 읽을 수 없어요

예산 사면석불상 훼손 부처님 상호 복원 절실

지난해 11월 26일 불교문화 유적
 답사 일환으로 법우들과 함께 충남
 예산군 불명 화정리에 소재한 사면
 석불상(보물 794호)을 친견하게 됐
 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면석불상은 모두 머리와 손이
 잘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자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도 안타깝고 눈물
 겨웠습니다.

더욱이 이 불상은 우리가 늘 열불
 하고 존경하는 아미타불, 석가여래
 불, 미륵불이란 점에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 불상은 높이가
 3M 폭이 60~120cm나 되는 큰 불상
 으로 백제시대의 귀중한 유물입니
 다.

이 불상이 머리와 손이 잘린 것
 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의해서
 자행된지는 몰라도 현재 그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불상은 지하에 매
 장된 것을 1983년에 발굴, 보물 제
 794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올바르게 복원했어야 함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삼보에는 살상 파손 비방 등 불순
 한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허부발리 종단이
 나 관계기관에서 일만 구족한 부처
 님의 상호로 복원했으면 하는 간곡
 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돈상(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만화 법구경

* 더러움의 장 *

믿는 데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보시하라

이항원

독서 기쁨, 반향 기쁨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서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
 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
 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
 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
 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
 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